

김종진, 청자가마터 방문

〈문화재청장〉

〈진안군 성수면 도토리 중평〉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 · 남원 두락리 고분 등도 방문... 조사 탄력 받을 듯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지난 8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전북 기념물 제134호) 발굴조사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청자가마터 발굴현장에서 그동안의 조사 성과를 확인하고 유적의 향후 조사·정비방안과 국가 문화재 지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항로 진안군수, 나익균 국립근대대학교 총장, 박장근 군산대박물관장, 노화기 전북도 문화유산과장 등 조사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지난 8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전북 기념물 제134호) 발굴조사 현장을 찾았다.

현재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례 문화재 조사를 통해 2기의 초기 청자가마가 조사 확인됐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5차 조사에서는 2016년 확인된 2호 가마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2호 가마에 대한 조사결과 가마는 전체길이 43m, 경사도 12° 내외의 전형적인 초기청자가마로, 처음 벽돌을 재료로 하여 축조하였다가 이후 진흙 가마로 개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기의 초기청자가마에서 벽돌가마가 진흙가마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된 사례는 우리나라 최초이며, 이 가마는 호남 최대 규모의 초기청자가마로 파악되고 있다.

진안군은 조사 성과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 학술심포지엄 개최와 국가 문화재 지정 등을 추진하고, 향후 유적 정비와 활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김종진 청장은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 남원 두락리 고분 등도 방문했다.

고분, 초기청자가마의 중요 특성이던 축요(벽돌가마)가 확인된 진안군의 도토리 초기청자가마 등은 역사를 새로이 재편해야 할 정도의 중요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문화재청장의 방문으로 이들 유적의 조사 및 정비 복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안=우태민기자·장수=고관호기자

무주 진원반디길마을, 보냉탑차 지원받아

렛츠런 재단 '농어촌발전지원사업' 선정돼... 장류사업으로 공동소득 올려

무주군은 안성면 진원반디길마을이 렛츠런 재단(이사장 이양호)에서 추진하는 2017년 농어촌발전지원사업(농·어촌생활개선 소득증대)에 선정돼 지난 8일 차량(보냉탑차) 1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농어촌발전지원사업은 렛츠런 재단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마을 농산물로 장류사업(된장, 고추장 등 생산·판매)을 추진해 공동소득을 올리고 있는 진원반디길마을은 최근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는 등 소득증대를 위한 폭 넓은 도움이 필요해 보냉탑차를 지원하게 됐다.

렛츠런재단 관계자는 "렛츠런재단은 한국마사회 경마 수익금으로 농어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진원반디길 마을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한 차량이 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더욱 신선하고 안



무주군 안성면 진원반디길마을이 렛츠런 재단에서 추진하는 2017년 농어촌발전지원사업(농·어촌생활개선 소득증대)에 선정돼 지난 8일 보냉탑차 1대를 전달받았다.

전하게 유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황정수 무주군수는 "진원반디길마을은 마을로 가는 축제가 참여하고 등 연중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여름나기 좋

은 테마 별 농촌여행코스'에도 선정됐을 만큼 마을 자원과 주민들의 역량이 풍부한 곳"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이 동력이 돼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무주의 7차 산업화를 주도하는 마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9월의 장수, 문화·체육행사 다채

논개배·한우랑사과랑 체육대회, 장수가야 특별전 등

장수군은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장수 3월인 의암주논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체육 대회가 펼쳐진다.

행사는 ▲제12회 장수 의암주논개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9.9~10./한누리전당 산디관)를 시작으로 ▲제12회 장수 의암주논개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9.12~13./장수 종합경기장) ▲제17회 장수 의암주논개배 전국 탁구대회(9.16.~17./장계국민체육센터)가 개최될 예정이며, 장수군 메인 축제인 제11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기간(9.22.~24.) 동안 ▲제35회 전라북도 남녀 공도대회(9.23./장수 공설운동장 벽계정)와 ▲제3회 한우랑 사과랑 전국축구대회(9.23.~24./장수 공설운동장의 4구장) ▲제9회 장수 의암주논개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9.23.~24./논개활공장)가 개최될 예정이다.

문화행사로는 제8회 장수논개 전국 관소리경연대회(9.23~24./한누리전당 소공연장), 제6회 깃질놀이 공연(9.23./의암공원 메인무대)이 열리며,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장수가야 특별전시 행사(9.22~24./주계관)도 기획돼 있어 관심을 끌 예정이다.

또한, 장수군은 오는 16일 남원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년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에 110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전국에서 불리는 동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음식점, 편의점, 위생시설 등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각종 편의 시설을 정비, 각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계면, 노인사회활동 직무교육

장수군 장계면에서는 지난 8일 장계면 문예복지관 다목적관에서 2017년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로 배정된 노인 참여자 151명을 대상으로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현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길재 장계면장이 직접 '노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직무교육을 진행했고, 이어서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 안전예방팀에서 '응급처치 대처방법' 등 안전교육'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길재 면장은 강의에서 "어르신들께서도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서 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며,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 협약

무주군이 귀농희망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두 기관은 △귀농인 체류시설과 영농실습 공간 마련과 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귀농지원 추진사업에 대한 교차 홍보와 안내, 그리고 △교육수료자가 무주군으로 귀농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무주군은 서울에서 추진하는 '서울농장 조성사업', '서울시 농부의 시

장' 등 귀농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으로, 무주군 인구유입과 반딧불 농·특산물 판로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안성면 공정리 2999-1번지 일원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생활동 10동, 공동실습 텃밭 1개소 1,200㎡, 개인 텃밭 10개소 330㎡, 공동시설하우스 1동 600㎡, 공동버섯하우스 1동 168㎡)을 준공했으며 서울시와 공동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17.8.21.~12.20.)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는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장수군 풍수해보험 온실가입 농가 방문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에서 전국적으로 풍수해보험 온실가입률이 우수한 장수군을 방문했다.

풍수해보험 온실가입자 농가를 방문하여 가입동기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풍수해보험 가입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장수군을 격려했다.

장수군은 현재까지(8.31 기준) 온실 가입률 75%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입률이 가장 높다. /장수=고관호 기자

도내 국유림 임도 34개 노선 10월 20일까지 개방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등 관내 임도 34개 노선 172km를 10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내 임도는 노면 폭이 좁고, 비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임도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묘지관리를 벌

미로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7~8월 잦은 강우로 인하여 임도 내 지반이 약해져 있고 낙석 및 급커브, 낭떠러지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조림초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감율리기 심리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은 관내 아토피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존감 율리기 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28일까지 주1회 운영되는 자존감 심리프로그램은 조림초등학교 4~6학년 을 대상으로 자신을 탐색하고 인식하며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체험활동은 청소년 심리상담사 2명이 진행하며, 자기소개 명찰만들기, 장점피자만들기, 나의 신체상그리기, 친구와 릴레이 그림그리기, 나·너·우리 칭찬하기 등 활동을 한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